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이 현 진¹⁾

계명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김 명 찬²⁾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이 연구는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한국의 가부장주의, 학벌주의 문화에서 지방대학 출신 한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의 의미와 성찰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자기회상자료, 자기분석일지, 대화 등을 수집하고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렌즈로서 여성주의 상담이론을 기반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고정관념의 삶’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지으며 고정관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화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편견을 성찰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당연함이 아닌 낯선 것으로 경험을 인식하며 변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었다. ‘삶의 주체로서의 삶’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며 회복과 성장을 통해 삶의 주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편견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역동을 이해하고 변화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지방대학 출신 여성, 사회적 자리매김, 가부장주의, 학벌주의, 여성주의 상담, 자문화기술지

*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

1) 계명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조교수

2) 교신저자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부교수 (E-mail: vitacha0@gmail.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편견과 차별이 많은 사회라 할 수 있다(최재인, 2014).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편견, 출신학교, 출신 지역, 결혼가정,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 편견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편견은 대상을 차별하는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은 학벌사회라 할 수 있다(전은희, 2017). 학벌사회는 한국의 최고 명문대부터 지방대학에 이르는 서열화된 구조에서 그 전형을 읽을 수 있다(정용교, 이화경, 2012).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격화되어 온 입시경쟁 속에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간 순위가 생겨났다(이종현, 2007). 또한 90년대 5·31 교육개혁을 필두로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전은희, 2017). 이 교육개혁은 중고교 수준에서 위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시 제도는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학벌의 독점과 재생산을 촉진시켰다(전은희, 2017). 그 결과 한국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우위에 있는 이들만이 학벌의 획득과 재생산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홍성태, 2002). 즉, 한국에서 학벌은 신분 상징의 핵심 지표로 간주되며, 일단 한번 결정되면 이후의 삶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정용교, 이화경, 2012).

개인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학벌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은 학벌주의자가 되기 쉽다. 곧 학

벌주의적 신념과 가치, 태도를 학습하게 된다. 학벌주의는 개인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거나 일상 깊숙이 녹아 있어 개인의 선택과 실천의 많은 부분이 학벌주의를 통해 구조화된다. 나 또한 학벌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지방대학 출신 여성으로 사회에서 주어지는 자리에 당연한 듯 자리매김하며 살아가고자 했다.

가부장제는 정치, 법, 경제, 종교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구조화된 지배를 지칭하는 것으로(Goldberg, 1993), 본질적으로 성차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성윤희, 2020; 성윤희, 정주리, 2019). 세계경제포럼이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에서 산출한 성 격차지수에서 한국이 153국 중 101위로 나타났으며(World Economic Forum, 2020), 2020년 유엔개발계획 성불평등지수에서 한국은 여성 인구 경제 참여율 영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성윤희, 2020).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한국은 여전히 가부장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신적인 어머니, 아내처럼 전통적인 성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은 수용의 대상이 되지만, 성공한 여성, 직업 여성처럼 전통적인 성역할을 유지하지 않은 여성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나(이현진, 이하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다. 아직 많은 부분 남아있는 가부장주의 한국 문화로 봤을 때, 육아는 엄마의 몫이다. 그렇다면 나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나의 역할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나 에겐 두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학벌주의,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지으며 위클래스 상담자로 살아가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했다. 이 일은 두 아이를 키우며 시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았다. 어떻게 보면 대학원을 다니는 것조차 두 아이가 있는 지방대학 출신 여성에게 주어지는 흔치 않은 좋은 환경이었을지 모르겠다.

이 연구는 학벌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지방대학 출신 여성이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벌주의, 가부장주의, 지방대학생의 인식 및 특성, 한국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벌주의를 살펴보면, 전은희(2017)는 서울대생의 학벌주의 정체성에 대해 내러티브 접근을 통해 연구했다. 이는 학벌획득자¹⁾의 학벌주의 정체성과 그 변화에 대해 탐색하여 학벌획득자는 대학 입학 후 거의 필연적으로 정체성 위기와 혼란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 가는 것을 밝혔다. 또한 개인이 아닌 서울대라는 대표성으로 호명됨으로써 인격적 소외를 경험하기도 했으며, 이에 저항하여 부정, 방조, 연극과 가면 등 다양한 정체성 관리 전략을 동원하는 것을 밝혔다. 반면, 정용교와 이화경(2012)은 지방대

학생 입장에서 학벌주의 현상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지방대학생은 자신이 소속된 학벌로부터 심각한 압박감을 받고 있었고, 불투명한 미래에 큰 두려움을 느끼며, 현대판 골품제에 비견할 정도로 극복 불가능한 것으로 탐색되었다. 김부태(2011)는 2000년도 이후 발간된 전국 규모의 학력, 학벌에 관한 의식 및 인식을 조사한 12편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재분석하여 학력과 학벌주의 인식체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학벌을 능력과 동일시하려는 인식과 이를 부정하는 인식이 갈등적 구조로 공존하고 있으며, 성공과 출세를 필수요건이자 차별로부터 탈피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명찬(2015)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가족과 구성원들에게 서울대학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탐색했다. 이는 자신의 결핍을 학력으로 극복하고자한 경험을 성찰을 통해 학력은 욕구를 부분적으로 채워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가부장적인 문화를 살펴보면,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김정민, 2017; 정희성, 2009),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성윤희, 정주리, 2019),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스타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김현준, 2013)에 대한 연구 등 가부장적 환경이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을 뿐 나의 의문에 대한 답은 찾기 힘들었다. 즉, 학벌주의, 가부장적인 환경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여성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대학생의 인식 및 특성을 살펴보면,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 이 연구에서는 전은희(2017)의 학벌획득자와 학벌박탈자를 구분한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학벌위계에서 높이 위치할수록 학벌획득자에 낮게 위치할수록 학벌박탈자에 가깝다. 학벌박탈자는 아예 대학졸업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벌위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이를 말한다.

지방대학생에게 ‘지방대학생’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하고(양민옥, 김혜선, 이지하, 2015), 지방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이상록, 2007), 지방대학생들에 대한 사회 구조적, 경제 구조상의 차별적 상황은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행동, 학습 및 진로성숙도에도 영향을 미친다(전경애, 박정환, 2010). 또한 지방대학의 대학생은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에 비해 사회구조적으로 차별이 양산되는 사회 구조로 대학의 서열구조를 해쳐 나가기도 벅찬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양민옥 등, 2015).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지방대학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진로장벽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진로 결정 및 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정지애, 이제경, 2018). 넷째,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살펴보면,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성평등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인 성역할과 남성 중심적 문화는 적지 않게 여성이 취업 후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한다(김수한, 신동은, 2014). 가족돌봄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경력단절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은 취업, 승진, 임금에서의 불이익,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가정과 직장에서의 다중 역할에 대한 압력 등의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지방대학생의 진로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벌주의, 가부장적인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지방대학 출신

여성이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험한 삶의 여정을 여성주의 상담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자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여성주의 상담이론은 가부장주의, 학벌주의 등 한국 사회에서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주의 이론과 방법을 상담에 도입하여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사회현실구조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그 경험을 이해하고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상담이론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이지연, 2004).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의 억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구조 문제로 보기에 그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를 추구한다(김희선, 2019). 즉, 여성주의 상담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주의 상담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성의 시각으로 자신의 세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억압된 자기 경험을 이해하고 그대로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박경, 2020). 이러한 여성주의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나의 경험을 재해석함으로써 나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상호작용을 지각하고 나와 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자서전과 특정한 사회집단의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기술지의 이중혼교적인 결합으로 사회나 공동체의 맥락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Reed-Danahay, 1997), 이는 학벌주의,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지방대 출신 여성이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험을 생생하게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양적 연구와 같은 변인 연구는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상담이론을 적용한 분석을 시도하는 자문화기술지 연구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김명찬, 2016). 넷째, 연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기(self) 연구는 연구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자기 주도적인 연구로 실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며(박영은, 2014), 실천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개선을 목표로 한다(LaBoskey, 2004). 이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자리매김을 연구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는 이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한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벌주의, 가부장주의를 제도가 아닌 하나의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벌주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지방대학 출신의 여성으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대안적인 관점과 접근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지방대학 출신 여성은 사회적인 자리매김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여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자문화기술지

이 연구는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으로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에 대한 주제를 탐색하였다. 자문화기술지는 자기(self)와 타자(other) 간의 공유된 문화적 맥락을 자기 경험 중심으로 밝혀내는 방식으로(Chang, 2013), 연구자의 이야기가 사회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이현진, 이동성, 김명찬, 2020). 즉, 자문화기술지는 지방대학 출신 여성이 사회적 자리매김을 위한 자기의 이야기와 학벌주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에 유용하다 할 수 있다.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3가지 구성 요소인 자기(auto), 문화(ethno), 기술(graphy)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관여하며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연속체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Chang, 2013). 상담학 이론에 기반한 자문화기술지 유형은 자기분석적 자문화기술지, 관계 중심적 자문화기술지, 상

호문화적 자문화기술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현진(2020)은 자문화기술지는 3가지 요소인 자, 문화, 기술이 모두 포함되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자문화기술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자기분석적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에 초점을 두어 타인, 상호문화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자문화기술지로 정의하였고, 관계 중심적 자문화기술지는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개인, 상호문화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문화기술지로 정의하였으며, 상호문화적 자문화기술지는 문화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자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문화기술지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이현진(2020)의 상담학 이론에 기반한 자문화기술지 유형 중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학벌주의,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분석적 자문화기술지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대학 출신 여성이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경험을 자기분석적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새로운 통찰과 이론적 성찰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여성주의 상담이론에 기반하여 이론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상담이론 중 개인의 경험을 사회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론들도 있지만, 여성주의 상담이론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외적 억압 요소에 대한 탐색과 인식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기 때문이다(박경, 2020). 또한, 여성주의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조명하는 상담이론으로 전통 상담이 개인 심리 중심으로 문제를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

며 사회적 조건이 내면화되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며 성차별과 권력의 문제 등을 주의 깊게 다룬다(이미혜 등, 2012). 즉, 여성주의 상담이론은 학벌주의,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형성된 신념이나 태도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이론적 성찰을 기술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자문화기술지는 자아, 문화, 연구 과정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연구자의 반영성과 자기성찰을 연구의 전경에 내세워 연구주제를 탐구한다(Ellis, 2004). 이 연구에서는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자기성찰을 여성주의 상담이론을 기반으로 연구주제를 탐구하고자 장희원(Chang, 2013)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방법과 절차를 참조하여 자료 수집, 분석, 해석과 글쓰기 절차를 따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은 지방대학 출신 여성이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여정과 관련된 개인적 기억자료, 반성적 저널, 자기관찰 자료, 지인과의 인터뷰 전사본 등을 수집하였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자문화기술지는 개인 내부 자료인 개인적 기억자료와 반성적 저널 등을 강조하며(Wall, 2006), 개인 내부 자료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다른 질적 연구방법론들과 차별성을 나타낸다(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2010). 따라서 나는 Chang(2013)이 제시한 자문화기술지의 개인 내부 자료인 개인적 기억자료, 자기성찰 자료, 자기관찰 자료, 인터뷰 자료 중에서 기억자료와 자기관찰 자

표 1. 자료 및 결과 적용 현황

자료출처	자료 수집 기간	자료 수집 및 분석 수	분석 및 결과 적용
개인적 기억자료	2020. 3 ~ 2021. 3	28건	경험의 의미 해석
반성적 저널 및 자기관찰 자료	2020. 3 ~ 2021. 3	17건	경험의 재해석 및 감정 변화
인터뷰 자료	2018. 3 ~ 2021. 3	6건	다양한 관점으로 경험 인식

료를 주요한 자료로 선정하였다. 기억자료는 근대의 학문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다(이동성, 2012). 왜냐하면 주관성을 기초한 기억자료는 객관성을 상실한 오염된 연구자료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이동성, 2012). 하지만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의 기억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며 연구자의 기억이 변형되더라도 기억의 시간성과 지속성은 연구주제와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본다(Muncey, 2005). 자기관찰 자료는 연구자 내면의 인지적 활동, 행동, 감정의 변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Chang, 2013). 이러한 가부장주의, 학벌주의 등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연구자의 기억자료와 자기관찰은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이라는 연구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며, 외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여성주의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화하며 수시로 자료를 반복하여 읽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여성주의 상담 연구자들은 다양한 제도적 성차별주의, 계급주의, 가부장제를 영속시키는 사회 맥락에서 사회화됨으로써 흔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결과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이러한 사회 맥락이 영속화되어 온 부가적인 독특한 형태의 사회적 불공정을 낳는다는 것에 주목한다(Gentlewarrior, Martin-Jearld, Skok, & Sweetser, 2008). 이러한 여성주의 상담이론은 가부장주의, 학벌주의 등의 한국 문화에서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적합하다. 자문화기술지는 자료 분석을 위한 유일한 코딩과 범주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이동성, 2012). 하지만 질적 자료에 대한 코딩과 범주화는 자문화기술자의 해석과 글쓰기 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Dehtloff, 2005), 이 연구에서는 Saldaña(2009)가 제시한 가치코딩을 실시하였다. 가치코딩은 연구자의 자아에 대한 가치, 태도, 신념에 대한 재현을 분석하는 것으로(Saldaña, 2009), 여성주의 상담이론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 세계에 대한 해석적인 인식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료를 수집하여 동시에 자료를 읽으며 연구자의 경험을 성찰하고 재해석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선정하고 범주화하였다.

셋째, 연구에 대한 논의는 공동연구자(김명

찬, 이하동일)와 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험에 대한 성찰을 공유하며 나의 이야기의 주관성 및 왜곡 위험을 극복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공동연구자는 상담심리치료전공 교수로 학술지에 다수의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발표하였고, 현재 여성주의 상담이론으로 자문화기술지 연구 3편을 학술지에 발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Guba와 Lincoln(1989), Richardson(2000), Duncan(2004), Maxwell(2008)의 타당도 준거를 결합하여 응답자 확인, 풍부한 기술, 동료 피드백 등을 적용하여 연구 과정에서 타당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응답자 확인은 나의 경험에 대한 결과 분석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족, 지인 등에게 피드백을 받아 재검토하였다. 예를 들면, 연구자와 가족 간 할머니와의 기억이 다른 경우 가족과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 경험이 일치하는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야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풍부한 기술은 지방대학 출신 여성으로 사회적 자리매김을 위한 장기적인 개인적 경험과 성찰 및 기록을 토대로 풍부한 경험을 기술하였다. 셋째, 동료 피드백은 자문화기술지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2인, 박사수료 1인 등 동료들에게 피드백 받아 주관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연구에 단언적인 문장으로 결과 분석이 된 경우(예: ‘~되어간다.’를 ‘~배워간다.’) 이를 수정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경험에 대한 자료에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이 연구는 나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렌즈로서 여성주의 상담이론을 기반으로 성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나 스스로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 왔으며,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연결할 수 있는 인식과 시각을 갖게 했다.

1.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에 대한 관점: 고정관념의 삶

당연한 관점

초등학교 시절, 아파트 앞 계단에서 누군가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의 큰 목소리와 어쩔줄 몰라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련하다.

‘니년이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 ‘딸들 공부시켜서 호강하고 살아라’

(초등학교 시절, 기억회상 자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 목소리가 할머니임을 인식할 때쯤, 30년이 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말이다. 며칠째 큰언니의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으로 집안이 시끄러웠다. 할머니의 호통치는 소리, 그로 인한 부모님의 갈등, 그것들을 잠재워 주는 마지막 할머니의 발악인 듯 그렇게 할머니는 아파트 앞 계단에서 동네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치며 댁으로 돌아가셨다.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 집에서 여자가 공부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산업체 고등학교를 입학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며, 돈 모아 결혼하는 것이 당

연한 여자 아이의 삶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언니의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묵묵히 견뎌 준 덕에 언니는 무사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것은 나에게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다는 허락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Horney(2018)가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남성을 우선시하는 인식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남성의 소망으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언급한 것처럼 나는 우리나라 남성은 공부해서 성공하는 삶을, 여성은 공부하면 안되는 존재로 성공보다는 내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같은 여성인 첫째에게 주어지는 것 만큼은 나도 가질 수 있다는...즉,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사회화되고 제도화된 문화에 대한 편향과 편견이 당연한 듯 나의 몸속에 스며들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문화에 나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신의 한계 설정

학벌이 없어 그렇다 할 일자리가 아닌 현장직을 전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모님은 육체노동의 고됨과 한스러움을 술로, 부부싸움으로 풀어야만 하는 듯 했다. 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니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공부 좀 했다고 사람 깔보고 말이야.’

(중학교 시절, 기억회상 자료)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통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벌이 낮다고 그런 것도 모르냐며 무시 당하기 일쑤다. 이런 날이면 나보다 11살 어린 남동생을 불러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남들에게 무시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한국 사회에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힘써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부모님은 알고 계셨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좋은 학벌을 얻는 것이다(김동훈, 2002). 하지만 나는 여성이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았다. 단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지도 모르겠다.

‘그냥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에 가라’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중학교 시절, 기억회상 자료)

언니는 꽤 공부를 잘했다.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에 다른 지역에서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언니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이는 나 또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만 갈 수 있다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박경(2020)이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행동이 외부의 제약에 의해 강요될 뿐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고 이러한 한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사회화 경험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라 주장한 것처럼, 나 또한 가부

장 환경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삶을 사는 것에 순종하듯, ‘여자는 시집가서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인식에 갇혀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3~4년의 직장 생활을 끝으로 전업주부가 되었다. Goldman (1969)이 결혼은 여성의 의존성을 보장하는 경제적 합의라고 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수행한 나는 능력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사회적 틀 안에 들어온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후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첫 애는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 낳아서 좋겠네’
(2009년 첫 아이 출산 후, 기억회상 자료)

벋 속에 있는 첫째 아이는 딸이라고 했다. 하지만 출산 하니 아들이었다. 이 사실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쉰 것 같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 생각했지만 무언가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주변 지인들의 반응 또한 그랬다. 딸이라 했을 때 아쉬움을 표현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내심 아들을 바랐던 것처럼 느껴졌다.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 문화에 나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었다. 온 몸에 스며든 한국 문화에 나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2.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여정: 변화를 위해 준비하는 삶

다양한 관점으로 변화

연년생 두 아들을 출산하고 동시에 육아를

감당해야 했던 나는 무언가 빠진 허전함을 느꼈다. 두 명의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나의 한쪽 마음에 생겼다. 지금까지 당연한 삶인 줄 알았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를 키우며 나의 자아에 위협을 느꼈던 것인지? 지금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점점 나라는 정체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을지 모르겠다. ‘나’라는 정체감은 사라지고 싶지 않았다.

‘애나 잘 키워라’
(2011년, 엄마와의 대화, 기억회상 자료)

나는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이야기할 때면, 애나 잘 키우라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다.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여성으로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근거한 것처럼 느껴졌다. 여성은 돌보는 사람이라 보는 고정관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무언의 압력을 주었다. 나의 존재보다는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을 더 중요시 한 것이었다. 아이를 돌보지 않고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나쁜 엄마가 되었다는 생각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양육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될까?

(2011년, 기억회상 자료)

두 아이를 양육하며 지속적으로 든 혼란스러운 질문이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나로서의 삶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꼭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만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이는 어쩌면 사회적인 힘과 자립심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 마르크스주의 개념에서 자본주의가 전복되면 여성이 억압받는 상황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처럼(박경, 2020),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억압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 무의식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른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여성주의 상담원리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문화적 가치가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박경, 2020), 개인의 문제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미혜 등, 2012). 그렇다면, 여성에게 당연히 되는 엄마로서의 역할과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려는 역할의 갈등은 나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 여성이 가정을 돌보며 본분을 다하는 것임을 당연시하면서도 비생산적인 역할로 인해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하는 것은 더욱 헤어날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는 것만 같았다.

당연함이 아닌 낯선 것으로 인식

나는 학부에서 00공학을 전공했다. 남성이 80% 이상인 이 전공에서는 관련 기술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직장은 어디에도 없었

다. 학부 전공으로 두 아이를 가진 평범한 주부가 다시 설 자리는 없는 듯 보였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기며 가정을 돌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본분을 다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누군가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나를 의존적인 여성으로 만드는 것 같았다. 이런 개인의 내적 갈등은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대응하게 했다. 나만의 탈출구가 필요했다. 나는 사이버대학에 편입해 상담 공부를 시작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쯤이면 상담교사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누군가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 생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상담 공부는 나를 흥분하게 했다. 나는 알고는 있지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또한 그것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이 과정은 성장하면서부터 누적된 불편한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러한 분노 감정은 실천의 경험 이 되기도 하는 듯 했다. 한 가지 일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면 능률이 오를 수 밖에 없듯이(Csikszentmihalyi, 1990),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 흠뻑 젖은 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도교수: 00대학에 **학과 교수로 대부분 00학교 출신이 임용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침묵)... 능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8년 가을, 지도교수와의 대화)

00대학은 지방대학이다. 지도교수의 질문은 명확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같은 교수로서 지방대학 출신이 교수가 된 것이 의문이라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도교수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했던 것 같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얼어붙은 머리와 어떠한 대답이라도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에 나온 답이다. 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명문대학을 나온 엘리트 집단이어야만 한다는 사회적인 관념이 그대로 묻어난 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대답은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고스란히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담 공부를 하며, 나, 타인, 사회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면서도 무의식 속에 녹아 있는 고정관념은 맞닥뜨린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방대학에서 교수는 나올 수 없는 것일까? 지방대학 출신은 능력이 없을까? 어느 누구도 그렇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주의 상담이론에서 사회적 권력이나 그것의 결핍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발달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Ivey, D'Andrea, & Ivey, 2011), 명문대학 출신만이 교수가 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나 개인의 고정관념을 변화시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는 공동체 삶에서 내면화

되고 체화된 것이기에 민감하게 살펴봄으로써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한국 사회에서 학벌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작은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의미와 가치: 삶의 주체로서의 삶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삶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부터 지도교수는 지속적으로 교수 임용 지원을 권유했다. 지방대학을 덮을 수 있는 논문 실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다. 나를 알아가고, 타인을 알아가는, 그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나는 꽤 많은 연구 실적을 얻을 수 있었다.

나: 제가 왜 교수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세요?

지도교수: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2019년 10월, 지도교수와의 대화)

히딩크 감독이 학벌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를 발굴하여 선수들의 마음에 감동의 기운을 불어넣었듯 지도교수의 이 말은 나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지도교수의 말처럼 지방대학 출신이 교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이 말은 나에게 세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끝까지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말인 듯하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안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여성이기에,

지방대학 출신이기에 안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지도교수 외에는 아무도 교수 임용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는 듯 보였다.

00교수님: 석사도 교대원(교육대학원) 나 왔잖아? 힘들어. 아니면 포닥이 라도 다녀오던지. 그래도 자리 잡기 쉽지 않아.

나: -웃음- 열심히 해 보려구요.

(2020년 4월, 00교수님과의 대화)

한국이 아직도 학벌사회임을 명확히 하는 말이다. 여러 번 교수 임용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수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나에게 이 학벌로는 교수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처럼 들렸다.

면접위원: 성공한 여성이네요.

(2019년 12월, ●●대학 교수 임용 면접)

●●대학 교수 임용 최종 면접에서 들은 말이다. 이 말은 지방대학 여성이 교수 임용 최종면접에 온다는 것은 성공한 여성이라는 말처럼 들렸다. 만약 명문대학의 졸업자가 최종 면접자였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는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은 보기 드문 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면접위원: **학 박사라는 명칭이 있나요?

나는 00박사인데.

나: **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면접위원: 교육부에 인가된 학위가 맞나요? ♦♦대학은 어디에 있는 건지?

(2020년 6월, ♫대학 교수 임용 면접)

♫대학은 ♦♦대학 인근에 있다.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출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는 듯 했다. 학벌주의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특히 교수 집단에서 그럴 수도 있음을 알고 있기에 씩씩함을 안고 면접장을 나왔다.

당연히 이 두 학교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교수 임용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지방 대학이라 하더라도 안 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런 사회 시선과 억압 가운데서 기준을 뜻대로 따르고 순응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여성으로서, 지방대학 출신으로서 사회적 위치의 상호의존성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성우월주의, 학벌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여성이어서, 지방대학 출신이어서 안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인식의 전환은 사회가 주는 삶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회복과 성장

나는 11개 학교 교수 임용 지원, 6개 학교 최종면접을 거쳐 지방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아이들에게 알려야 했다.

아들 2: 그럼 우리는 누가 돌봐줘?

아들 1: 학교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 체크하라고 하면 체크한다!? -웃음-

나: 엄마와 떨어져 지낸다고 엄마가 너희

를 돌보지 않는 건 아니잖아.

아들 1: 그건 그렇지!

(2021년 02월, 아들과의 대화)

아이의 말은 엄마와 떨어져 살면 자식을 돌보지 않는 나쁜 엄마 이미지를 투영한 듯 했다.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돌봄, 함께 있어 주는 엄마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한 엄마는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아이에게 엄마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건 아니라는 나의 말에 생각의 폭이 넓어진 듯 했다. 하지만 아이는 함께 있으며 돌봐주는 엄마와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의 모습은 좋고, 나쁨으로 여전히 혼란이 일어나는 듯 보였다. 이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학습되어 온 것과 개인적인 지각에서의 혼란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에게 이러한 경험은 삶을 당연한 것이 아닌 낯선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다.

언니: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지금 뭐 할 것 같아?

나: 아이 키우면서, 살림하면서..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웃음-

(2021년 03월, 언니와의 대화)

앞에서 밝혔듯, 나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의존적이고 무능력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 타인,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는 지배적인 사회에서 완벽한 혹은 관참

은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한 문화적 기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여러 사회적 위치에 속해 있다. 이 사회적 위치는 개인과 환경, 지배적이고 종속적인 사회문화적 기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된다. 특정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위치 중 일부는 특권의 자리에 있는 반면, 억압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다양하고 깊은 자아의 목소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가진 자아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사회의 편견을 새롭게 인식하고 개인 안에 존재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경험 속에는 한국사회의 편견이라 할 수 있는 학벌주의, 가부장주의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이 깔려있었다. 우리나라는 남성중심사회, 학벌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억압하고 사회의 보수화를 초래한다. 특히, 학벌사회에서 학벌획득자는 일상적으로 학벌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벌을 과시하는데 반해 학벌박탈자는 인격적인 수치심, 피해감과 열등의식을 경험한다(이종현, 2007).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특성

으로 인해 연구자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지방대학 출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지으며 사회적 자리매김을 이어갔다. 하지만 연구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서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문과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삶에 대한 의문과 혼란은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인식하고 성찰하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 편견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이론을 기반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이론은 Downing과 Roush (1985)에 의해 시작되었다. Downing과 Roush (1985)는 여성이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에 종속된 결과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설명하는 발달 단계로 수동적 수용 단계, 폭로 단계, 각인-발산 단계, 통합 단계, 적극적 헌신 단계 등 5단계를 제시하였다. 수동적 수용 단계는 여성이 전통적 성 역할을 받아들이며 이 역할이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단계, 폭로 단계는 여성이 위기와 관련한 연속된 사건을 경험하면서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단계, 각인-발산 단계는 새로운 방식의 생각과 행동을 실현하는 단계, 통합 단계는 보다 긍정적이고 공고화된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계, 적극적 헌신 단계는 인간발달에 대한 성차별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며 위계적인 문제가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 (Ivey et al., 2011). 이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관점은 사회적인 편견을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부장주의, 학벌주의 등 사회적인 편견은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회적 자리매김에 한계를 지으며 살아가게 한다. 즉, 여성이기에, 지방대학 출신이기에 사회에서 허락하는 자리에서 사회적 자리매김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여성주의 상담이론에서 개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개인적 문제의 산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에서 볼 때(Corey, 2016), 개인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기에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가부장 사회에서 순종적이고 저항할 줄 모르는 여성으로 길러진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자녀의 엄마이면서 여성 목사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현모양처가 되면서 나라는 존재의 자아실현이 쉽지 않음을 보여 준 염혜근의 연구(2020)와 비슷하다. 이런 반응은 사회적인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삶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이론의 수동적 수용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여성

이 전통적 성역할을 받아들이며 이 역할이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회에서의 차별의 결과로 일어나는 억압, 편견, 차별과 관련하여 부정하거나 인식하지 않는다(Ivey et al., 2011). 즉, 전통적이고 사회적인 편견을 지지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화된 사회적 맥락 안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인 편견에 순응하는 자동적인 반응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성찰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문화와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가치 체계가 알게 모르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통찰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여정은 다양한 관점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당연함이 아닌 낯선 것으로 경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부장주의, 학벌주의 등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을 당연한 것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은 창의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홍숙지, 2005). 즉,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살펴보는 인지적 유연성은 대안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해석하여 대안적 사고를 하는 능력임을 감안할 때,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임정하와 조은영, 오연경, 윤원영의 연구결과(2016)와 비슷하다.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개인의 목소리

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한 경험은 한 개인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능력에 제한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환경 이면에 있는 사회적 편견을 인식하고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이론의 폭로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전통적인 것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Ivey et al., 2011). 이러한 의문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관습이나 질서에 제외되어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관습이나 질서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여성의 모성을 자극하여 성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학벌이 하나의 낙인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소외를 경험하고, 학벌주의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설정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개인의 경험을 살펴봐야 한다. 이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개인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성찰함으로써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의 의미와 가치는 개인의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주의 상담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여성주의 정체성은 한 개인이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잠재력과 개성을 개발하고 새롭게 확립된 특성을 지속하는 것이

다(박경, 2020). 또한, 결혼한 여성이 자아실현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현실을 자각하고 그 경험을 재해석하는 기회를 가지고 거리를 두며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실패와 좌절을 대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안동현의 연구(2020)와 비슷하다. 이는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이론의 통합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보다 긍정적이고 공고화된 개인의 정체성으로 표현되며, 삶에서 경험하는 개인 문제를 다양한 사회 요인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Ivey et al., 2011). 즉,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자동적이며 순응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사회적 자리매김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을 한국의 가부장주의, 학벌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 보았다. 연구자 본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기, 타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문화기술지 연구 과정은 자기 성찰 및 자기이해에 효과적이다(이현진 등, 2020). 이 연구는 학벌박탈자인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을 주제로 여성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관점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자리매김을 성찰하였다. 학벌 사회에서 학벌은 개인의 정체성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학벌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김근영, 2013). 즉,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이라는 주제는 한국의 가부장주의, 학벌주의 편견을 이해하고 사회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짓지 않고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편견의 벽을 깨는 실천은 사회적인 편견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 사회를 이해하는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문화기술지 연구 과정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공명과 반향을 일으켜 그것으로 인해 사회 변화를 위한 촉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천, 이동성, 2011). 둘째, 이 연구는 지방대학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이 발달해 가는 여정을 알 수 있었다. 인간발달에 있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속성 있는 지각으로 개인의 신념, 능력, 개인사가 통합되어 있는 자기구조를 말한다(Erikson, 1980). 이러한 정체성은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고 이를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얻으며 정체성을 발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 출신 여성의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을 한 연구자의 관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이들이 경험한 사회적 자리매김 경험을 탐색하지 못했다. 이는 한 개인의 경험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나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회환경에서 성장하더라도 연령, 기질적 특성, 형제 순위 등에 따라 그 경험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이들의 경험을 연령대, 출생순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근영 (2013).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측정의 지위적 접근과 서술적 접근: 문화권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6), 73-102.
- 김동훈 (2002).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더북.
- 김명찬 (2015). 나는 왜 서울대 박사가 되어야 했나?. *교육인류학연구*, 18(2), 163-195.
- 김명찬 (2016). 가난 극복의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인간·환경·미래*, 17(1), 75-107. <https://doi.org/10.34162/hefins.2016..17.003>
- 김부태 (2011). 한국 학력, 학벌주의 인식체계 분석. *교육학연구*, 49(4), 25-54.
- 김수한, 신동은 (2014). 기업 내 여성관리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경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학 논문집*, 12, 149-167.
- 김영천, 이동성 (2011).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19(4), 1-27.
- 김정민 (2017). 20대 미혼여성의 우울증 형성과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티어의 빙산메타포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준 (2013).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선 (2019).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여성주의 상담적 분석: 사례개념화를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32, 67-101. <https://doi.org/10.23905/ksppcc.32..201905.003>
- 박 경 (2020). 여성주의 상담. 서울: 학지사.
-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55-79. <https://doi.org/10.17318/jae.2010.13.2.003>
- 박영은 (2014). 자기 연구를 통한 초임 교사 교육자의 교수 경험 성찰. *한국교사교육학회*, 31(3), 221-243. <https://doi.org/10.24211/tjkte.2014.31.3.221>
- 성윤희 (2020).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7(4), 1-19. <https://doi.org/10.15284/kjhd.2020.27.4.1>
- 성윤희, 정주리 (2019).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2), 547-567. <https://doi.org/10.15753/aje.2019.06.20.2.547>
- 안동현 (2020). 독서치료 텍스트로서의 『에이비스 이야기』 연구: 여성의 결혼과 자아실현의 갈등을 중심으로. *독서치료연구*, 12(1), 87-103.

- 양민옥, 김혜선, 이지하 (2015). 지방대학교 대 학생으로 살아가기. *청소년학연구*, 22(1), 267-286.
- 염혜근 (2020). 가부장사회 여성으로서의 나의 이야기: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한국여성신학*, 91, 129-136.
- 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한국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8(2), 307-328.
- 이동성 (2012). *질적연구와 자문화기술지*.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이미혜, 김영자, 문채수연, 배인숙, 이문자, 이화영, 황경숙 (2012). 여성주의상담과 사례 슈퍼비전. 서울: 학지사.
- 이상록 (2007).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실태와 영향: 지방대학생의 대학생할 태도 및 진로준비 행동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7(1), 253-270.
- 이종현 (2007). ‘학벌과시’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 학벌과시의 기원과 특성. *사회과학연구*, 15(2), 380-413.
<https://doi.org/10.17787/jsgiss.2007.15.2.380>
- 이지연 (2004). 여성주의 상담의 적용 실태와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73-791.
- 이현진 (2020). 상담학 이론에 기반한 자문화기술지 개념 및 연구 유형 탐색.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진, 이동성, 김명찬 (2020). 상담학 이론에 기반한 자문화기술지의 개념적 특질 탐색. *질적탐구*, 6(1), 71-105.
- 임정하, 조은영, 오연경, 유원영 (2016). 대학생의 감사성향과 인지적 유연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93-120.
<https://doi.org/10.14816/sky.2016.27.2.93>
- 전경애, 박정환 (2010). 지방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및 ‘무기력 행동’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7(1), 57-81.
<https://doi.org/10.22804/jke.2010.37.1.003>
- 전은희 (2017). 학벌주의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적 이해: 서울대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0(3), 103-148.
<https://doi.org/10.17318/jae.2017.20.3.004>
- 정용교, 이화경 (2012). 지방대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벌주의 실태와 대안. *중등교육연구*, 60(3), 699-724.
<https://doi.org/10.25152/ser.2012.60.3.699>
- 정지애, 이제경 (2018). 지방대학 대학생의 진로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취업진로연구*, 8(2), 47-74.
<https://doi.org/10.35273/jec.2018.8.2.003>
- 정희성 (2009). 여성 우울의 심리학적 원인 연구: 교회 여성을 위하여. *신학과 사상*, 146, 275-304.
<https://doi.org/10.35858/sinhak.2009..146.009>
- 최재인 (201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서울: 갈무리.
- 홍성태 (2002). 학벌주의와 강남특별구. *문화과학*, 29, 231-242.
- 홍숙지 (2005). 개인 유연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ang, H. (2013). *Autoethnography as method: Developing qualitative inquiry*. CA: Left Coast

- Press.
- Corey, G. (2016). 통합적 상담: 사례 중심의 접근. 현명호, 유제민, 이정아, 박지선(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2013)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Dethloff, C. (2005). *A principal in transition: An autoethnograph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A & M University.
- Downing, N. E., & Roush, K. L. (1985). From passive acceptance to active commitment: A model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for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4), 695-709.
<https://doi.org/10.1177/0011000085134013>
- Duncan, M. (2004). Autoethnography: Critical appreciation of an emerging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3(4), 28-39.
<https://doi.org/10.1177/160940690400300403>
- Ellis, C. (2004). *The ethnographic I: A methodological novel about autoethnography*.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 Company.
- Gentlewarrior, S., Martin-Jearld, A., Skok, A., & Sweetser, K. (2008). Culturally competent feminist social work: Listening to diverse people. *Affilia*, 23(3), 210-222.
<https://doi.org/10.1177/0886109908319117>
- Goldberg, S. (1993). *Why men rule: A theory of male dominance*. Chicago: Open Court.
- Goldman, E. (1969). *Anarchism and other essays*. New York: Courier Corporation.
- Guba, E. G., & Lincoln, T. S. (1989). *Naturalistic inquiry*. Chicago: Sage.
- Horney, K. (2018). *The flight from womanhood: The masculinity complex in women, as viewed by men and women*. London: Routledge.
- Ivey, A. E., D'Andrea, M. J., & Ivey, M. B. (2011).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multicultural perspective*. Chicago: Sage.
- LaBoskey, V. K. (2004). The methodology of self-study and its theoretical underpinnings. In J. Loughran, M. L. Hamilton, V. K. LaBoskey, & T. Russell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elf-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actices* (pp. 817-869).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https://doi.org/10.1007/978-1-4020-6545-3_21
- Maxwell, J. A. (2008). Designing a qualitative study. In L. Bickman, & D. J. Rog (Eds.), *The SAGE handbook of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s* (pp. 214-253). Chicago: Sage.
<https://doi.org/10.4135/9781483348858.n7>
- Muncey, T. (2005). Doing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4(1), 69-86.
<https://doi.org/10.1177/160940690500400105>
- Reed-Danahay, D. E. (1997). *Auto/ethnography: Rewriting the self and the social*. UK: Berg.
- Richardson, L. (2000). New writing practices in qualitative research. *Sociology of Sport Journal*, 17(1), 5-20. <https://doi.org/10.1123/ssj.17.1.5>
- Saldafña, J. (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Chicago: Sage.
- Wall, S. (2006). An autoethnography on learning

- about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5(2), 146-160.
<https://doi.org/10.1177/160940690600500205>
- World Economic Forum. (2020).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Cologny/Geneva: Author.
- 1 차원고접수 : 2021. 04. 14.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0.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Experiences of Social Positioning of Woman from Local Universities: Autoethnography

Lee, Hyun-jin

Student Counseling Center,
Keimyung University

Kim, Myeung-chan

Dept. of Counseling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experience of social positioning of woman from a local university. In the patriarchal and academic culture of Korea, the meaning and reflection of woman's social positioning experience from a local university were shown through autoethnography. We provided a new perspective and understanding to those who live by setting their own limits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To this end, various data were collected, and major categories were derived through data analysis based on feminist counseling theory as a lens that can understand experie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rough 'Life of stereotypes', people were living a life of stereotypes by limiting what they could do due to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Korea. Through 'Life preparing for change', we could look at society from various perspectives, recognize experience as unfamiliar, and prepare for change by reflecting on Korea's socio-cultural prejudice. Through 'Life as the subject of life,' he did not set his limits and could live life as the subject of life through recovery and growth.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socio-cultural prejudices in Korea and providing the possibility of change.

Keywords: woman from local university, social positioning, patriarchalism, academicism, feminist counseling, autoethnography